

Statement on Sexuality (성에 대한 진술)

이 진술은 2005년 7월 13-14일 RANC의 AGM 에서 승인되었다. 그리고 11번째 연합교단 총회에 계획안으로써 동의와 발표를 위한 연합교단 의회에 내놓았었다. 2006년 7월 12일에 열린 EMU와 RA의 정상회담은 고백교회(고백하는 회중의 총회 ACC)를 위한 성에 대한 진술서로써 이 진술서를 채택했고, 2006년 10월 13-14일에 열린 호주연합교단 내 고백교회(ACC)의 취임식에 그 총회의 기초 문서로써 이 진술서가 채택되었다.

그 의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 교회의 성에 대한 가르침과 실천을 성서에서 확인함으로써, 또한 다음의 고백적 진술들을 채택함으로써 재확인한다.

- a.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자유롭게 살며, 우리의 남성 혹은 여성적 성에 대한 신임적인 존재로써 서로와 연합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창 1:26-28; 2:18-24)
- b. 우리는 성적 교합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서약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어야 함을 믿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 확증된 것이라는 사실은 믿는다. (창 2:24; 마 19:4-7; 막10:6-8; 엡 5:25-33)
- c. 우리는 동성애적 실행속에 연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써 창조한 그 창조성에 대한 성서의 분명한 증언에 대립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레 18:22; 레20:139a; 롬 1:24-27; 고전 6:9-20; 딤후전 1:8-11)
- d. 우리는 동성애적 실행안에 연결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성체적 교제에 해가 된다고 믿는다. (고전 5-6)
- e.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함께 교회의 연대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상의 화해에 대한 감사가 그것을 계약하게 만듦을 믿는다.
 - i. 동성애적 실천(실행)에 의해 유혹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갖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그리고 그들이 유혹이나 적개심, 질병 혹은 사별등을 경험할 때 (갈 6:1-6), 그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목회적 돌봄(요 8:1-11)을 해 주기.
 - ii. 성서의 명백한 증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실행적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갈 5:16-25)
- f. 우리는 다음의 것들에 의한 교회 내에서의 동성애적 실행을 표준화하지 않음을 믿는다.
 - i. 성직 임명, 위임 혹은 실행적 동성애를 하는 교회의 목회로 취임하는것.
 - ii. 장엄한 혹은 축복하는 동성애 연합회들.